

I776 INSTITUTE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1103호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1776연구소 창립총회

1776연구소는 지난 7월 5일 역삼동 '유나이티드 갤러리'에서 <창립총회 및 비전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 사단법인으로의 첫 발을 떴었다. 60여 명의 회원이 현장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보고했으며 정관을 최종 승인 및 확정하였다.



제1회 리멤버 이승만

지난 19일 부암동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에서 이승만 대통령 서거 60주기를 맞아 <제1회 리멤버 이승만> 추모 헌정제를 개최했다. '이승만 따라하기' 코너에서 청년들은 편지를 낭독하거나 노래를 개사해 부르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이승만의 삶과 업적을 기렸다.



견미단 2기 발대식

지난 26일 경기도 광주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견미단 2기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이 열렸다. 미국에서의 일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견미단원들은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하여 미국의 독립정신을 체화하겠다는 다짐을 공유했다. 캠퍼스 내 선교 및 성경박물관과 이승만사진전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대표 인사말

안녕하세요, 1776연구소 조평세입니다. 1776의 첫 번째 뉴스레터로 인사드리게 되어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1776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벌써 2년이 되었지만, 후원을 받는 정식 시민단체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은 사실 올해 3월입니다. 발기인 다섯 명이 모여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사업내용을 논의했고, 4월에 임의단체로 등록하여 후원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249주년 독립기념일에 맞춘 지난 달 7월 5일, 강남 모처에서 창립회원 60여 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이사로, 회원으로, 또 후원자로 함께해주는 여러분께 참 감사드립니다.

1776연구소는 미국의 독립정신과 서구 자유문명의 뿌리가 된 유대-기독교 가치관, 즉 자유와 신앙과 가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국내에 전파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 사업으로 미국 견학프로그램인 '견미단'과 아카데미, 북클럽, 세미나, 문서 사업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7월에는 연구소 창립뿐 아니라 특별히 8월에 있을 견미단 2기를 준비하느라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열리는 여름캠프 강의로 한 해 중 가장 바쁜, 그러나 그만큼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연 일정으로 바쁠때는 청년 이승만의 미국 유학 시절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5년의 짧은 유학기간 동안 미 전역에서 무려 200여 회 강의를 뛰었다고 하지요.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말입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13번의 강연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저는 세어보니 7월 한 달 동안 강의를 12번 있었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들의 히어로 이승만을 생각하면 그 어떤 수고도 거뜰할 수 있습니다.

Standing athwart,
조평세 올림

<극우몰이 현장 속 역사란 무엇인가>



"<리박스쿨>은 이름 그대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과 부국(산업화)의 공을 다음세대에게 알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단체의 취지에 맞게 여러 애

국 활동을 펼쳐왔는데, 그중에는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들을 양육하거나, 어르신들에게 SNS 활용법, 포털사이트 댓글 달기 등을 교육해 자신들의 의견을 온라인에 적극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파 성향의 언론매체 '뉴스타파'의 기자가 거짓말과 위장으로 리박스쿨 사무실에 침투해 이런 활동들을 악의적으로 엮어내고, 마치 엄청난 여론조작과 불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자극적으로 기획보도한 데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기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말입니다. 당시는 유시민이 김문수 후보의 아내에 대해 학력과 출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여론의 반발이 거센 때였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측이 그런 여론을 무마하고 반전시키기 위해 공작을 했다고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

<대한민국은 바벨탑인가 출애굽인가>



"월드뷰는 "바실리카-국가와 교회"라는 큰 주제로 올 한 해 특집 주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하게 시작된 2025년 상반기는 전

국을 흔든 대중 집회와 구국기도회, 탄핵 인용과 국민의힘 경선, 그리고 조기 대선과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까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7월호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흘러간 지난 반년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고자 본지 1월호 발행사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제목이 "미국과 한국의 3F 회복을 기대하며..."였지요. 서구 자유 문명의 기초가 되었고 결국 자유민주 공화 체제를 세운 Faith(신앙), Freedom(자유), Family(가정)를 두 나라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

8월 연구소 동정

견미단 2기 미국 파견

2024년 7월 견미단 1기, 2025년 1월 1.5기에 이어, 오는 8월에는 견미단 2기가 미국으로 출국하여 본격적인 보수주의 역사 탐방에 나선다. 견미단은 1776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미국 탐방 프로그램으로 약 2주간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와 보수주의를 공부한다.

금번에는 총 56명의 견미단원이 미국으로 파견된다. 하와이, 뉴욕, 프린스턴, 필라델피아, 애나폴리스, 그리고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견미단원들은 앞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에서 전달받은 소책자 4권을 미리 읽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중시하는 이번 견미단의 세 가지 모토와도 관련이 깊다. <"2025 견미단, 우리의 모토 : 1. 아는만큼 보인다. 2. 기록한 만큼만 가져간다. 3. 표현하지 못하면 아는게 아니다.">

2025년 여름, 미국에서 56명의 '리틀 이승만'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August, in the History of Liberty

- 8월 1일 (1798) 영국 넬슨 제독, 나일 해전에서 프랑스 나폴레옹 격파
- 8월 1일 (1950) 6.25전쟁 미군, 부산에 도착
- 8월 4일 (1789) 프랑스 혁명정부 구제제 폐지 선언
- 8월 6일/9일 (1945) 미국,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 8월 14일 (1941) 처칠과 루즈벨트 대서양 헌장 발표
- 8월 15일 (1945) 일본 항복 선언 / 광복 80주년 / 건국절
- 8월 16일 (1653) 하멜 일행 제주도에 포류
- 8월 18일 (1976)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8월 19일 (1991) 소련 쿠데타, 고르바초프 사임
- 8월 21일 (1866) 제너럴 셔먼호 사건
- 8월 24일 (1456) 구텐베르크 성경 완성
- 8월 26일 (1789) 프랑스혁명정부, 인간과시민의 권리선언 채택

광고

<성경과 정치(하)> 출간

1776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가 번역한 책 <웨인그루텐의 성경과 정치(하)>가 7월 30일 출간되었다. 이 책은 환경, 외교와 국방, 언론의 역할 등 각 이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입장을 제시한다.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 출간

1776연구소 이사 책임논설자가 집필한 책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가 7월 30일 출간되었다. 이 책은 혼돈과 격변의 한가운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정치관과 분별 기준을 제시한다.



7월 후원자 리스트

- | | | | | | | | |
|-----|-----|------|-----|-----|-----|-----|-----|
| 강○은 | 김○애 | 노○스더 | 배○호 | 양○진 | 이○빈 | 장○ | 조○호 |
| 권○운 | 김○은 | 도○현 | 서○민 | 여○현 | 이○진 | 정○원 | 차○욱 |
| 권○현 | 김○주 | 민○환 | 서○경 | 원○슬 | 이○영 | 정○슬 | 추○령 |
| 김○연 | 김○진 | 박○민 | 신○식 | 윤○현 | 이○은 | 정○아 | 김○준 |
| 김○하 | 김○일 | 박○혁 | 양○호 | 이○현 | 장○재 | 정○용 | 이○란 |

후원 안내

3만원 이상 정기 후원 시
1776연구소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781904
(1776연구소)